

2/14 월요일

빌 4:1-4

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게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3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멩에를 멘 고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글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 1:27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롬 12:2-5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한 몸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살전 5:16-18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을 쓴 후에 바울의 부담은 내려졌다. 그러므로 4 장은 결론의 역할을 한다. 이 결론에서 바울은 어떤 부가적인 주요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4 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미 쓴 것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 요점들의 확인이다. 나아가서 4 장의 요점은 믿는이들에게 친교의 역할을 한다.

빌립보서 4 장 1 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그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말한다. 이러한 말들은 바울이 느낌이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는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한다. 믿는이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로 언급한 후에, 그는 다시 사랑하는 자들인 그들에게 말했다. 믿는이들은 안으로는 그의 기쁨이었고 밖으로는 그의 면류관이었다. 기쁨은 안에 있는 반면에 면류관은 밖으로 나타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이들이 그의 안의 즐거움인 동시에 그의 밖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4 장 1 절에서 바울은 믿는이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한다. 「이와 같이 서라」는 표현은 앞 구절에서 제시된 대로 특별하게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이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보여준 대로 서 있기를 권하고 있었다.

2 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이 두 자매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한 혼으로 함께 힘쓰라는 권면(1:27)과, 한 가지를 생각함으로 혼

안에 연결되라는 권면(2:2)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같은생각을 가지라는(3:14-15) 권면이 있었다.

3 절에 따르면 이들은 바울에게 도움이 된 매우 좋은 자매들이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힘썼으며 또 글레멘트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 외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썼다.」고 말한다. 「힘쓰다」라는 헬라어는 체육 용어이다. 그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씨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자매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힘쓰는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일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것을생각함으로써 하나되는 것이 필요했다. 앞에 있는 장(章)들에 따르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투려는 유혹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바울이 이 자매들에게 말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을 상기해야한다

4 장 3 절에서 바울은 멩에를 같이한 자라는 용어를 쓴다. 고대에는 쟁기를 끄는 데 두 마리의 소를 사용했다. 멩에를 같이 한 자라는 용어는 공동된 짐을 지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멩에를 지는 것을 뜻한다. 빌립보서를 씀에 있어서 바울은 같은 멩에 아래서 그와 같이 같은 짐을 질, 참으로 멩에를 같이하는 자를 찾고 있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멩에를 메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 있어 매우 자유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멩에를 메었다면 바울과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다. 바울과 함께 멩에를 메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와 같이 그를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자매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줄 부담을 가졌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있었으므로 이 짐을 지기 위해 자신과 함께 멩에를 멜 빌립보 사람이 필요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바울은 멩에를 메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아무런 자유가 없었다. 그의 생각은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멩에 메어져 있었다.

어떠한 대가를 치뤄서라도 바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추구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멍에가 씌워져 있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자유가 없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메어져 있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는 이 두 자매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성도를 찾고 있었다. 이것이 이 서신을 결론짓는 매우 실제적인 말이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를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썼지만 나는 이 편지가 완전한 일을 해내리라는 확신이 없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같은 생각으로 참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이 이 자매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나와 같은 생각 아래 멍에를 메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멍에를 같이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역시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에 대한 필요가 있다. 주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의 미움과 거절을 받았다. 당신은 이 사역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까지 할지 모르나 사역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멍에를 메어야 한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에 대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라는 바울의 표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나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보의 믿는이들이 이러한 생각, 곧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의 권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권면을 한 뒤에 그는 다투고 있었던 두 자매를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참으로 멍에를 같이한 자인 어떤 이가 그와 함께 수고하기를 권하여 유오디아와 순두게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분쟁으로부터 돌이켜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추구는 데 두도록 돕게 했다.

4 장 4 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다. 믿는이들이 분쟁을 하고 있든 어떻든 그들은 모두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옳았다. 그러나 나는 분쟁하는 자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여기서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 기뻐함은 2 절과 3 절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위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 기뻐하기를 배우는 것이 필요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5 절부터 9 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탁월한 특성을 갖는 비결이다. 이구절들에 나타난 미덕들을 가지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6 장)

2/15 화요일

빌 4:4-7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¹ 여러분의 ²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³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¹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²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³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 ⁴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¹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²마음과 생각을 ³지키실 것입니다.

시 62:8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삼상 1: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출 15:25a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엢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살전 5:23-24

23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4¹ 기뻐할 때, 우리는 4 장 2 절과 3 절에서 언급한 하나가 되는 힘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 나열된 탁월한 미덕들을 갖는 비결이다.

5¹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서 사도가 당부한 것은 그가 1 장부터 3 장까지에서 말한 내용, 곧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내적 실재를 외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5²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헛된 영광(빌 2:3),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빌 2:14)과 대조된다. 관용은 믿는 이들이 살아 낸 탁월한 미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5³ 즉, 공간과 시간적으로 가까이.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

6¹ 즉, 걱정하지.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6²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6³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6⁴ 이 헬라어는 자주 ‘-와 함께’ 로 번역된다(요 1:1, 막 9:19, 고후 5:8, 요일 1:2).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이다.

7¹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데 있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인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7² 마음은 근원이고, 생각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7³ 혹은, 수비하실 것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이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 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 이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후자의 제목이 전자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하다. 빌립보서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곧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생활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면이 관용이다. 빌립보서 4 장 5 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고 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두 번째 면인 염려 없음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는 관용이 있지만 염려나 근심은 없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면으로 관용과 염려 없음을 생각했다.

...

나는 바울이 처음 석장에서 그러한 깊은 문제들을 다룬 후에 왜 4 장 5 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고 말하는지 몰랐다. 바울이 이미 다룬 것과 비교하면 관용은 이차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관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이다.

...

6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한다. 가끔 우리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 근심하며 염려에 빠진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킨다.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7 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해준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말은 우리의 경험에 따른 이 구절들의 해석이 올바름을 증명한다. 염려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잔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7 장)

2/16 수요일

빌 4:8-9

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¹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²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³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⁴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⁵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⁶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⁷미덕과 어떤 ⁸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⁹생각하십시오.

9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¹받아들이고 듣고 ²본 것들을 ³실행하십시오. 그러면 ⁴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살전 1:5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히 13:7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준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고후 13:11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님들, 기뻐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이 1:3-4

3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롬 15:33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주에서 발췌

8¹ 윤리적으로 진실하며. 이것은 사실 여부가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8² 즉, 존경할 만하며, 존경할 가치가 있으며, 고상하며, 정중하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심을 갖게 하는 장중함을 암시한다.

8³ 정직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것을 가리킨다.

8⁴ 즉,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으며.

8⁵ 즉, 사랑할 만하며, 상냥하고 애정을 느끼게 하며.

8⁶ 즉,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해야 하며, 매력 있어야 하며, 마음을 끌어야 하며, 친절해야 하며.

8⁷ 탁월한 것, 즉 활기찬 행동 안에서 나타난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베드로후서 1 장 각주 3 와 각주 5 참조.

8⁸ 즉, 미덕에 함께 수반되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 처음 여섯 항목은 ‘무슨 일든지 -하며’로 분류되고, 마지막 두 항목은 ‘어떤 -이 있거든’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마지막 두 항목이 처음 여섯 항목의 총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 여섯 항목에는 모두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8⁹ 숙고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고려하십시오.

9¹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9²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

9³ 믿는 이들은 4 장 8 절에서 사도가 언급한 것들에 관해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사도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9⁴ 평안의 하나님은 4 장 8 절과 9 절에 언급된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함으로써, 이 모든 미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산출될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이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고 나서, 4 장에서 전적으로 윤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확실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은 인간의 천연적인 속성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이 탁월한 특성들은 손을 표현하는 장갑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장갑의 내용으로서 장갑에 꼭맞은 손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의 미덕들은 실제인 거룩한 속성들을 담기 위한 「장갑」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미덕들은 거룩한 내용인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관용과 진실함과 위엄과 같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릇이나 용기들일 뿐 내용은 아니다. 신성한 관용과 신성한 진실함과 신성한 위엄이 인간의 관용과 진실함과 위엄의 실제이자 본질이다. 우리의 미덕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점령할 때까지는 빈 그릇이요 빈 장갑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채워서 우리를 내적으로 점령한 그때에 「장갑」은 살아 있는 「손」으로 충만된다. 손이 없는 장갑은 공허하며 생명이 없다. 장갑 안에는 살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겉모습조차 없다. 그러나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갈 때 장갑은 여전히 장갑이지만 이제 그 안에는 살아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간 후에 장갑은 살아있는 표현을 가지기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미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미덕이 그리스도로 점유되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공허하며 참된 생명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로 점유될 때 그것들은 실제로 채워지며 그분의 표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른 생활과 그리스도의 표현인 생활과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최선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아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적 미덕들을 배양하고 개발하도록 가르치는 공자의 가르침일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더해 줄 수 없었다.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미덕들을 개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인 우리에게 어떤 미덕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미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자는 「명덕(明德)」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 속에 밝고 빛나는 미덕이 있음을 알았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르침은 이 명덕(明德)을 배양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미덕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덕들에 더해질 때 그 미덕들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내용과 실제인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미덕들은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릇이자 용기(容器)라는 사실이다.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나는 특히 청년들에 대해 부담이 있다.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할지 모른다. 50 여 년 전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찾고 있었으나 오늘과 같은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말을 얻기 위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렀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조차 축복이다. 어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유기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분명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 그림에서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고 또한 염려를 위한 해독제가 필요함을 본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여섯 가지 주된 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은 실로 놀랍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기도하고, 그 구절들을 기도로 읽으며, 그것들에 관해 교통하며, 그것들에 관해 서로 간증하기를 바란다. 여기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방대한 영역이 있고 탐구하고 체험해야 할 무진장의 풍성이 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8 장)

2/17 목요일

빌 4:10-13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1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1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1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2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3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4풍부하거나 5궁핍하거나, 6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7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1능력 주시는 2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0-13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이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3: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골 1:27-29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히 13:5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딤후 6:6, 8-9

6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8 다만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9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각주에서 발췌

10^a 헬라어로는 ‘씩이 나고 꽃이 핀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빌립보의 믿는 이들이 사도를 생각하는 것이 생명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한동안 바울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는 마치 식물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빌립보의 믿는 이들이 사도를 생각하는 것이 새롭게 꽃피기 시작했다.

11^a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은 스토아학과(금욕주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들은 사람이 모든 환경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만족하는 것은 빌립보서 3 장 18 절부터 19 절까지에 언급된 에피쿠로스학과 사람들의 실행과 반대된다.

12^a 초라한 환경에서 보잘것없게 되는 것이다.

12^b 풍족하게 사는 것이다.

12^c 만족하는 것이다.

12^d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며 여유 있는 것이다.

12^e 부족하며 가난을 겪는 것이다.

12^f ‘각각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를 의미한다. 이 둘을 함께 더하면 인생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웠다.

12^g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13^a 헬라어로는 ‘안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골 1:27). 그분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내적으로 능력을 얻음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13^b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고후 12:2),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이제 바울은 이분,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 장 5 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4 장 10 절부터 13 절까지에 의하면, 바울은 그가 배운 비결을 수감중인 자신의 상황에 적용한다. 한 죄수인 그는 많은 믿는 자들과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많은 교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로마에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수감 중에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받았다. 그에게는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했다.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 수감되어 있기로 분명 쉽지 않았다.

...

4 장 13 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12 절에서 말한 비결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3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간증했다. 이제 4 장 13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나의 자족의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4 장 13 절의 「- 자 안에서」라는 구절을 3 장 9 절의 같은 구(句)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3 장 9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으나, 4 장 13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비결이다.

당신은 그 비결을 보았는가? 당신은 이 비결을 가졌는가?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는 풍부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는 비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주님에 대한 누림은 똑같다. 바울은 풍부했을 때보다 비천했을 때 더욱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는 자신이 부유했을 때보다 가난했을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이해이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다. 나는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그리스도를 똑같이 누린다.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똑같다.」 그 누림은 같을지라도 그 맛은 여전히 다른 것이다. 누림이나 맛에 차이가 있는 없든 간에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운것은 확실하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29 장)

2/18 금요일

빌 4:14-20

14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¹환난에 ²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5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¹주고받는 ²계좌로 나와 함께 ³교통을 가진 교회가 ⁴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습니다.

17 나는 ¹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²계좌에 ³열매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¹준 것을 받아서 ²풍족합니다. 그것은 ³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⁴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9 ¹나의 하나님께서 ²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³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⁴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⁵영광 가운데서 ⁶채우실 것입니다.

20 이제 ¹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²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³아멘.

빌 4:14-20

14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5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습니다.

17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열매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9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서 채우실 것입니다.

20 이제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 13:16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엡 5:1-2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고후 8:1-2

1 형제님들, 우리는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려고 합니다.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쳐 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구제가 넘쳐 나도록 하였습니다.

고후 11:9

9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4¹ 바울의 감금 생활을 가리킨다(빌 1:17).

14² 이것은 그들이 사도에게 물질을 공급함으로(빌 4:18)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한 것이다(빌 1:5).

15¹ 사도가 복음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받는 일.

15² 빌립보의 믿는 이들은 사도에게 물질을 공급함으로써, 사도에게 계좌를 개설했다.

15³ 이 교통(함께 나눔)은 빌립보서 1 장 5 절과 4 장 14 절에 언급된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이다.

15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 보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유일한 본이었다.

17¹ 이것은 주님의 권익을 위해 주님의 종에게 준 물질이다.

17² 이것은 4 장 15 절에서 개설한 계좌이다. 우리는 빌립보 사람들의 본을 따라 그러한 계좌를 개설하고, 또 수입란에 우리가 공급한 열매가 계속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17³ 이것은 그들이 사도의 복음의 일에 교통하고 참여한 결과이다. 이것은 주님의 날에 보상이 될 것이다.

18¹ 사도에게 공급한 물질들이다.

18² 충분히 공급받았습니다.

18³ 헬라어에서 이 구는 에베소서 5 장 2 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이며, 하나님께 드리진 희생 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가리킨다(창 8:21).

18⁴ 바울은 사도의 필요를 채운 빌립보 사람들의 물질적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히 13:16)로 여겼다.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a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증과 확신을 체험 안에서 가지고 있었다.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의 물질적인 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자기와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풍성히 갚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19^b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채우실 것입니다’를 수식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을 따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기초이고 요소이며, 영역이고 통로이시다. 이것은 심지어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주고받는 일까지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19^c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 그분의 풍성은 우리의 필요를 훨씬 능가한다.

19^d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것이다.

19^e ‘영광 가운데서’는 ‘채우실 것입니다’를 수식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19^f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20^a 하나님은 사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20^b 영광은 우리가 감상할 수 있도록 찬란하고 탁월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20^c 마태복음 6 장 각주 13 참조.

2/19 토요일

빌 4:21-23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¹은혜가 여러분의 ²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 4:21-23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3: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각주에서 발췌

23^a 은혜는 우리의 공급과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빌 1:19)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시고 실체가 되신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이 은혜가 필요하다.

23^b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이 책은 시작인 1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최고도의 구원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이 서신의 끝에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이제 삼일 하나님의 거처와 그릇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놀라운 영 안에서, 놀라운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무한히 풍족한 은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20 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21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안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말한 20 절과 관계가 있다. 즉 바울은 20 절에서 말한 그러한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한 것이다.

...

바울은 또 21 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한다. 바울과 함께 한 이 형제들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했다. 이것은 그들이 좋은 안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다시 갠주시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영광으로 믿는이들에게 안부했음을 의미한다.

...

22 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고 말한다. 여기서 가이사집 사람들은 네로의 궁전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중 몇 명이 바울과의 접촉을 통하여 개심하고 로마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가 되었다.

...

바울은 축복의 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1:19) 우리에게 전달되고 실제화된, 우리의 공급과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한다.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

23 절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영에 있다. 여기에서의 이 영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 안에서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의 영을 소홀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만유를 포함한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

우리의 영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영을 훈련하는 길은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기도는 영의 훈련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머리를 훈련할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영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영에 계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나는 50 여년간 성경을 읽고 공부한 자로서,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담대히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31 장)

2/20 주일

롬 12:6-18

-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 7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 8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 9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 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 12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 13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 14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18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찬송 (영한 동번)

#604 (#839), #521 (#717), #304 (#403), #400 (#539)

추가로 읽을 말씀

라이프 스테디 빌립보서 메시지 26, 27, 28, 29, 30

2022. 2. 14 ~ 2022. 2. 18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2 장